

내가 본 한국 ② 감탄과 청유형의 문화

구호의 나라, 표어의 나라

호락 토마스

(체코,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과정)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 기막힐 정도로 복잡한 교통을 빼고,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사방에서 쏟아져 나와 있는 간판들이었다. 상업적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질서한 빗발의 홍수가 정신을 어지럽게만 할 뿐 손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은 다하고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직접 거리로 나와 손님을 끌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간판은 원래 무엇을 보이게 하는 수단으로써 그 용도가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효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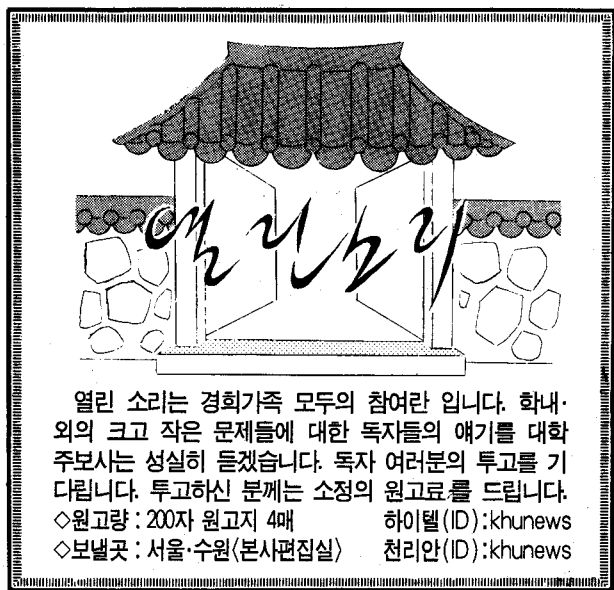
구호나 표어는 대개 내용이 좋기는 하지만, 인간의 도리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과연 간판에다가 쓰고 구석마다 내걸 필요가 있겠는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벽에 쓰여진 구호에 시선을 멈추고 깊이 반성하며 자기 생활 태도를 고치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빈약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보충할 수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리다가 멀지 않은 장래에는 '사람을 죽이지 마시라', '도둑질하지 마시라'와 같은 구호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대부분 옳은 말이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루에 만 번을 읽어봤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자연을 보호하시라', '쓰레기를 줄입시라'라는 표어를 볼 때마다 이 표시를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자원이 소비됐는지, 또 저것은 앞으

대부분 청유형으로 집단의식 표출

없어지는 것 같다.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남들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려 주거나 자기의 의도나 뜻을 전달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루에 그런 현수막을 수십, 수백 개씩을 보게 되면 무감각해지기 마련이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혹시 언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학교 주변의 간판이나 현수막을 자주 읽어 본 적이 있었는데 자주 똑같은 그 중에서 구호나 표어를 내세우는 것이 많다는 걸 알았다. 물론

로 어느 매립지에 갈 것인지 은근히 궁금해진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표어의 형식이다. 대부분은 '...하시라', '...자'의 청유형이다. 여기에서 아직도 한국어에 남아 있는 집단의식을 엿볼 수 있다. 집단의식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 체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지 않고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상태에서, 무조건 무엇을 지키고 해야 하고만 한다면 결국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는 성실히 들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투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양: 200자 원고지 4매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하이텔(ID): khnews
천리안(ID): khnews

한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무서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역사가 두렵다.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죽여도, 집회나 가면 참여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은 시대와 여론이라는 편견의 잣대로 우리들의 양심을 재고 있는지 않은가? 고교중퇴자인 서태지도 "왜 바꾸지 않고 남이 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무서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역사가 두렵다.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죽여도, 집회나 가면 참여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은 시대와 여론이라는 편견의 잣대로 우리들의 양심을 재고 있는지 않은가? 고교중퇴자인 서태지도 "왜 바꾸지 않고 남이 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무서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역사가 두렵다.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죽여도, 집회나 가면 참여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은 시대와 여론이라는 편견의 잣대로 우리들의 양심을 재고 있는지 않은가? 고교중퇴자인 서태지도 "왜 바꾸지 않고 남이 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임을 가지지는 않았다. 순간 순간 치열하게 고민했던 삶을 세상에 이야기 해주면서 살아갔다. 어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거대해져 버린 사회속에서의 의욕을 상실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거리에서 뛰어다니며 진실을 외치는 대학생들이 있다. 그들의 표정속에는 희망이 있다. 비록 지금은 작을지라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들로 인해 세상은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김 중 환

(자연대 물리 4)

잃어버린 도서관 예절

개인주의 배척해야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언제나 그랬듯이 도서관 자리잡기 경쟁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이번 중간고사 기간중에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면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적잖이 실망을 하였다. 첫째로, 도서관 내에서의 '정숙' 문제이다. 도서관과 같은 장소에서의 정숙문제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도 물론이거니와 대학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비록 열람실안은 아닐지라도 도서관 복도도 엄연한 도서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무서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역사가 두렵다.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죽여도, 집회나 가면 참여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은 시대와 여론이라는 편견의 잣대로 우리들의 양심을 재고 있는지 않은가? 고교중퇴자인 서태지도 "왜 바꾸지 않고 남이 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무서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역사가 두렵다.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죽여도, 집회나 가면 참여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은 시대와 여론이라는 편견의 잣대로 우리들의 양심을 재고 있는지 않은가? 고교중퇴자인 서태지도 "왜 바꾸지 않고 남이 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무서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역사가 두렵다.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죽여도, 집회나 가면 참여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은 시대와 여론이라는 편견의 잣대로 우리들의 양심을 재고 있는지 않은가? 고교중퇴자인 서태지도 "왜 바꾸지 않고 남이 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무서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역사가 두렵다.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죽여도, 집회나 가면 참여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은 시대와 여론이라는 편견의 잣대로 우리들의 양심을 재고 있는지 않은가? 고교중퇴자인 서태지도 "왜 바꾸지 않고 남이 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무서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역사가 두렵다.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죽여도, 집회나 가면 참여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은 시대와 여론이라는 편견의 잣대로 우리들의 양심을 재고 있는지 않은가? 고교중퇴자인 서태지도 "왜 바꾸지 않고 남이 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무서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역사가 두렵다.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죽여도, 집회나 가면 참여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은 시대와 여론이라는 편견의 잣대로 우리들의 양심을 재고 있는지 않은가? 고교중퇴자인 서태지도 "왜 바꾸지 않고 남이 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무서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역사가 두렵다.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죽여도, 집회나 가면 참여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은 시대와 여론이라는 편견의 잣대로 우리들의 양심을 재고 있는지 않은가? 고교중퇴자인 서태지도 "왜 바꾸지 않고 남이 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무서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역사가 두렵다.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죽여도, 집회나 가면 참여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은 시대와 여론이라는 편견의 잣대로 우리들의 양심을 재고 있는지 않은가? 고교중퇴자인 서태지도 "왜 바꾸지 않고 남이 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무서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역사가 두렵다.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죽여도, 집회나 가면 참여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은 시대와 여론이라는 편견의 잣대로 우리들의 양심을 재고 있는지 않은가? 고교중퇴자인 서태지도 "왜 바꾸지 않고 남이 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무서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역사가 두렵다.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죽여도, 집회나 가면 참여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은 시대와 여론이라는 편견의 잣대로 우리들의 양심을 재고 있는지 않은가? 고교중퇴자인 서태지도 "왜 바꾸지 않고 남이 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무서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역사가 두렵다.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죽여도, 집회나 가면 참여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은 시대와 여론이라는 편견의 잣대로 우리들의 양심을 재고 있는지 않은가? 고교중퇴자인 서태지도 "왜 바꾸지 않고 남이 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무서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역사가 두렵다. 노동법이 개악되어도,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죽여도, 집회나 가면 참여 학생수는 늘지 않는다. 혹시 우리들은 시대와 여론이라는 편견의 잣대로 우리들의 양심을 재고 있는지 않은가? 고교중퇴자인 서태지도 "왜 바꾸지 않고 남이 관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항상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와 정숙치 못한 행동들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떠드는 소리가 열람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문제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있는 도서관내 흡연이다. 도서관 안에 흡연장소가 따로 있지만 그곳은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도서관내 곳곳에서 아무렇게 담배를 피워

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이러한 대학인의 빈틈을 노리고 고도로 발달된 상업문화와 부패한 정치공작들이 대학에 그들의 잣대로 칼날을 들이민다.

대는 남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는 갖고있지 않는 그들을 어찌 지성인이라 불리우는 대학생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셋째, 이미 학생회를 통해서도 공공연히 알려진 도서관 사석화 문제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험기간 동안 좌석표를 나누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대학이란 곳에서 행해지는 제도치고 너무나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같은 처지의 학생들로서 나만 생각하기에 앞서 다른 학우들의 입장에 조금만 생각해 준다면 이런일은 문제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나 자신도 겪었지만 집이 먼 관계로 최선을 다해 학교에 일찍 도착했으나 도서관에 자리가 없을 때의 그 허무함과 난감함이란 아주 말할 수 없다.

내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몇 가지 사소한 문제를 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서는 학우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양심에 따른 문제성이다.

남보다 나만을 우선으로 하

는 이런 이기적인 사고방식 현

재로써는 작은 문제에 그치지

만 훗날 사회속에서는 어떻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양을 갖춘 지성인이

되는 길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나와 더불어 타인에 대

한 입장에 고려해주는 작은 배

려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학

생들이 알아줬으면 한다.

전 지 영

(생물 2)

출범식 학생 참여 저조

능동적 학생활동 필요

지난 18일 수원캠퍼스 총학

생회 출범식이 공대 농구장에

서 개최됐다.

총학생회에서는 무대 설치

및 행사준비 등으로 전일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대

자보와 플랜카드, VOU방송 등

으로 학생들에게 홍보해 많은

학생들의 동참을 부르짚었다.

행사장인 공대 농구장에는

행사시간 중 농구를 자제해 달

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

었고, 잠시 농구를 중지하고 갈

이 동참하는 출범식을 만들자

는 방송이 이어졌다.

그러나 시작 시간이 다가와

도 경기를 마무리하려는 학

생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오히

려 점점 많은 학생들이 경기에

열중하면서 출범식 행사를 수

수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약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출범식은 그리 많

은 학생들이 참석하진 않았지

만 학생들 개개인을 전체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이 남는다면 행사 주변에서 맴

돌며 함께 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과 요즘 학생들의

일반적 성향일 수도 있는 참여

의식의 부재였다.

너는 너고 나는 나란 식의

개인주의에서 탈피하여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와 총학

생회칙의 홍보운동 강화로 앞

으로의 교태투쟁이나 대외적인

문화행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김 용 의

(사회대 경영 1)

일일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소 설치

대학생 대상...교재 강매, 방문 및 다단계 판매등 피해사태상담

최근 벌어지는 판매행태를 보면 물품이나

용역을 단순히 판매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소비자를 장사로 등장시키는 일명 다단계 판

매가 등장,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학문에 정진해야 할 우리의 대학생들

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이러한 잘못된 판매방

법에 현혹되어 학교를 휴학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 주관하에 학생층까지 급속히 번지

경희 발전기금 명단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정성에 경희의 밝은 미래를 여김합니다.

출연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97년 3월25일~4월25일)

○김승철(총무과) 1백만원

○편해구(중앙도서관 열람과) 1백만원

○최승환(법과대 법학과 교수) 1백만원

○김지영(자연과학대 유전공학과 교수) 1백50만원

○황환익(경희의료원 재활의학과 팀장) 1백만원

○김주영(교육대학원 가정교육과 석사과 정) 1만원(영구월납)

○한희대발전기금 1천만원

-강명자(한의대 19회졸) 1천만원

-김재규(한의대 24회졸) 1천만원

-이범용(한의대 28회졸) 1천만원

-한희대 31기 일동 5백30만원

-이주련 1백만원

-장창규 1백만원

△경희사랑저금통 기탁

○조용호(의대 의학과교수, 학생처장, 2차 분) 6만3천5백40원

○이의영(경희초등학교 교장) 7만4천5백80원

○경희의료원 총무과 운전반 1만3천60원

○경희의료원 사무부 총무과 4만9백50원

○윤덕보(정의 20회, 경희의료원 사무부 장) 3만3천1백40원

○남순동(경희의료원 영안실 대표) 3만9천7백원

○경희의료원 급식과 2만4천4백90원

○경희의료원 노무과 2만9천8백원

○경희의료원 구매과 3만7천5백30원

○경희의료원 미수계 9천1백30원

○경희의료원 원무1과 9천9백60원

○경희의료원 원무2과 1만7백원

○경희의료원 홍보팀 4만3천4백50원

○이관식(외국어대 교양과 교수) 14만3천원

朔風